

경제학자 존 메이어스코(John Myerscough)의 이론을 통한 부산국제 무용제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이유나** · 조은숙***

I. 서론	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안
II. 경제학자 존 메이어스코(John Myerscough)의 예술 고경제성 이론	참고문헌
III. 부산국제무용제의 현황	Abstract
IV. 존 메이어스코 예술의 고경제성 이론을 통한 부산국제무용제	

I. 서론

현대사회에서 문화산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정치·경제를 비롯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쟁력을 움직이는 중요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을 이용한 무수한 축제들이 전국에서 열리고 있으며 축제의 이면에는 정치·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예술·관광·산업·사회적인 목적의도가 분명한 행사가 기획되며 국제적인 관광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축제 속에서 한국의 국제무용축제는 국내·외 많은 무용전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문화예술분야에 비해 무용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관심도와 저조한 수요계층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무용전문예술인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넓히기 위해 해외로 나가 세계 정상급 무용예술을 경험하고, 한국 국제무용축제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체계적인 축제의 시스템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국제무용축제에 대한 인식부족 및 소극적인 지원, 축제 운영의 전문 인력 부재, 대중의 무관심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용은 장르의 특성상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종합 예술로 지역브랜드의 주제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매개 콘텐츠¹⁾라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또한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대중들이

* 이 논문은 2015년 이유나의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을 수정·보완 재구성하였음.

** 주저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 석사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무용전공 교수, eschod@hanmail.net

1) 조남규(2012), 천안흥타령춤축제 2011 관람객의 참여 분석을 통한 무용장르의 대중화 방안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36(3), p.131.

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크고,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축제로 확고히 자리를 잡은 부산국제무용제를 통해서 한국의 국제무용축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부산국제무용제는 2005년 제1회 부산국제해변무용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한 발전을 보이며 한국무용축제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 유일 해변 무용축제로 국내에서는 지역축제 최초로 국비지원을 받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이 축제는 매년 해외의 수준 높은 무용 단체를 초청하여 국제적인 행사로 육성하고 있고 국내 젊은 안무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국내 무용인들에게는 국제무대로 뻗어 나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국제무용제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어스코(John Myerscough)의 예술 고경제성 이론을 통해 부산국제무용제의 경제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메이어스코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예술에 대한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의 글래스고(Glasgow), 머지사이드(Merseyside) 그리고 입스위치(Ipswich) 지역의 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 예술산업이 경제성을 띠기 위해서는 예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고용 창출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축제와 관련된 기존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유형별, 장르별, 행사별 축제에서의 무용의 역할 연구²⁾를 진행한 것과 축제를 이용한 지역 브랜드 확립 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유형별 실태분석을 한 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³⁾ 등이 있으나 축제의 만족도와 축제홍보 방안 연구, 현황 분석을 하는데 그쳐 국제무용축제의 경제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부산국제무용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부산국제무용제의 현황 분석⁴⁾ 및 부산국제무용제 지원 실태 보고⁵⁾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선행연구가 부산국제무용제 소개 및 현황을 분석하는데 그쳐 이 또한 국제무용축제의 경제성을 입증하기에는 미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국제무용제의 경제성을 입증하기 위해 메이어스코의 이론을 적용하여 부산국제무용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경제학자 존 메이어스코(John Myerscough)의 예술 고경제성 이론

존 메이어스코는 영국의 경제학자로서 그의 저서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1990)를 통해 예술의 고경제성 이론을 주장 하였다. 그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예술에 대한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의 글래스고(Glasgow), 머지사이드(Merseyside), 입스위치(Ipswich) 지역의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진행 당시 영국 예술조직은 재정 지원을 민간분야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공지원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

2) 신명숙·황혜원(2005), 지역축제에 있어서 무용의 역할, 『무용역사기록학회』 9, p.119.

3) 이혜진·정옥조(2010), 문화관광 축제의 무용공연 활성화 방안, 『대한무용학회』 65, p.204.

4) 황인주(2010), 지역특성을 고려한 무용축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19, p.122.

5) 황인주(2007), 부산시 무용공연 지원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무용기록학회』 13, p.185.

로 인해 다양한 예술분야가 생겨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예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며, 예술지원 시 돈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적절하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그는 서구 국가들의 공통적인 예술 지원 경향에 대해 이론을 펼치게 되었으며 까로우스페 굴벵기안(Calouste Gulbenkian)이 창설한 예술·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재단인 Policy Studies Institute Copyright를 통해 1988년 예술 고경제성을 이론을 성립하게 되었다. 그는 정량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문화예술의 전 분야를 분석하며 예술산업의 경제성을 입증하는데 노력했다.

그는 예술산업을 총 14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는데 예술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통한 경제적 측면과 예술산업의 발달을 통한 사회적 측면, 예술산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기회 및 효과, 예술산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예술산업에 대한 후원 등으로 살펴보았다.

예술산업은 지역주민들의 주 소득원으로 다른 산업과 분리되어 매년 경제적인 측면에서 높은 매출량 보이고 있다. 예술산업의 매출량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극장, 콘서트 등 유명명소와 방송, 영화, 영화관 비디오 등 기술적인 문화산업, 책, 음반산업 등과 같은 문화생산으로 분류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그의 연구 결과 예술산업의 매출량이 전년 대비 50%이상을 차지하며 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측정되었고 관광객들의 주된 지출 분야가 예술산업임을 알 수 있었다. 김기연(2003)⁶⁾ 또한 그의 연구에서 예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강조하면서 예술산업이 물질적·기능적 생산의 성공을 능가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고, 문화상품에 대한 개발은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존 메이어스코는 예술에 대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후원은 넓은 의미의 상업적 문화산업의 지표가 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보몰(Baumol)과 보웬(Bowen)⁷⁾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예술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인식을 주장하며 과점적 시장구조로부터 예술창작과 향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술지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요소가 예술적 자원으로 생산됨과 동시에 다수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⁸⁾

존 메이어스코가 진행했던 5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음반회사, 출판사, 극장, 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예술산업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예술산업 종사자의 수가 30만 명이 증가하였고, 예술산업으로 파생된 부수적인 산업의 종사자가 16만 명이 증가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예술 종사자의 수 뿐 만 아니라 예술산업으로 파생된 부수적인 산업의 종사자 수까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예술 종사자의 저임금 현상이 해결되고,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까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존 러스킨(John Ruskin) 또한 예술산업의 발전으로 노동자의 노동활동 즉,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조성이 예술품의 개발로 연결되고, 대중들이 보다 나은 예술품을 향유한다고 주장하였다.⁹⁾ 이는 예술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예술시장의 인프라가 안정화되며 부수적인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로 인해 보다 많은 대중들이 예술산업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산업의 선순환구조를 의미한다.

예술산업은 적절한 기간과 시간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소로 작용하며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도

6) 김기연(2003), 『문화예술경영 이론과 실제』 (서울: 청소년문화포럼), p.172.

7) Baumol · Bowen(1966), *Performing Arts-The Economic Dilemma: A Study of Problems Common to Theatre, Opera, Music and Dance*(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p.582.

8) 라도삼·이호영(2003),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18.

9) 임상오(1997), 문화경제학의 사상적 원유 John Ruskin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45(1), p.33.

시 재개발의 촉매로 작용한다. 존 메이어스코는 영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방문 목적에 영향을 주는 주된 산업은 예술산업이며 40%이상이 예술산업을 경험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예술산업은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주도하며 나아가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말하였다. 예술산업을 통해 탄탄한 문화 사회기반 시설을 지닌 지역은 예술이 지역의 사업 자산이라 주장하고 있다. 키언스(Kearns)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해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주민 및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시설과 제도 안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

앞서 언급한 주장들을 정리하면 예술산업의 매출량 증가와 고부가가치로서의 가능성, 예술에 대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 확대에 의한 부가가치의 증가, 주민들의 생활권 안정은 예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함축할 수 있으며 예술산업의 종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른 인력 인프라가 확장, 부수적인 산업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의 일자리 안정화를 고용창출 안정화로 함축할 수 있다. 또한 예술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역 불균형 해소 및 관광객의 수요 증가, 부수적 산업의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함축된다.

존 메이어스코는 예술 고정제성에 대한 연구에서 “예술은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자석으로 작용하며, 이는 서비스 산업에 소비층 증대를 위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예술관련 시설은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으며,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 폭 넓은 발전의 촉매제로써 지역경제에 주도권을 갖고 있다”¹¹⁾고 강조하였다.

III. 부산국제무용제의 현황

부산국제무용제는 세계 유일 해변에서 진행되는 무용축제이다. 2005년 광안리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해변무용제를 시작으로 현재의 부산국제무용제가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세계적인 예술축제로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매년 해외 수준 높은 무용 단체를 초청하여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제문화교류 도시인 부산의 이미지를 재고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해운대에 특설무대를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무용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또한 국내 젊은 안무가를 위한 육성프로그램(AK21)을 통해 국내 무용인들에게는 국제무대로 뻗어 나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매년 전문 프로그래머가 부산국제무용제의 참가하는 해외무용단체를 다양한 기준으로 선정함으로써 무용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무용가들에게도 국제적인 영감을 주고 있다.

2005년 제1회 국제해변무용제가 개막되었을 때, 스페인, 독일, 일본, 영국, 호주 등 8개국의 해외 유

10) Kearns, G·Philo, C(1993),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Oxford: Pergamon Press), p.2.

11) John Myerscough(1988),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 p.148.

명 무용단체들과 국내 10개 무용단체가 공연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칼레도니아, 아르헨티나 등 7~8개국의 해외 유명 팀과 국내 유명 단체들이 매년 초청됨으로써 부산국제무용제는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온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초기 부산국제무용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국제무용축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축제의 지원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변무용제[(현)부산국제무용제] 집행위원들의 개인 사비를 투자하여 축제를 개최하였지만 해외 수많은 팀들의 출연료 및 교통비, 숙박비 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부산 업체들에게 빚을 지며 제1회 국제해변무용제는 적자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2회가 개최되면서 국제해변무용제의 운영위원장이 직접 예산을 관리하고 민간기관의 지원금을 확대시키면서 경제적 상황은 점점 나아졌다. 2008년 이후 부산국제무용제는 사단법인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지역 최초 국비지원을 받는 국제무용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9년 국제 안무가 육성 프로그램(AK21)을 통해 국비지원이 확대되었고 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무용축제이자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무용축제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IV. 존 메이어스코 예술의 고경제성 이론을 통한 부산국제무용제

II장에서 언급했듯이 경제학자 메이어스코의 예술 고경제성 이론은 예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용 창출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이루어졌을 때 예술산업이 고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그의 주장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부산국제무용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부산국제무용제의 고부가가치화

메이어스코가 주장한 예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매년 늘어나는 예술산업의 매출량 증가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용의 증가이다. 이는 축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안정 및 상권 증가와 예술후원(지원금, 후원금)의 확대까지 의미한다.

현재 예술산업은 기존 예술이 인식되어 온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고부가가치의 사회활동과 경제행위를 위한 인프라로 인식되어 오며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¹²⁾ 고호석(2005)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지역축제를 꼽았으며, 그것이 해당 지역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도 민족적, 지역적 특성이 잘 나타났을 때 생긴다”고 주장했다.¹³⁾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예술산업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예술을 통한 지역축제는 지역의 관광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메이어스코의 예술 고경제성 이론을 토대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국제무용제의 사업비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예술산업의 매출량 증가 및 축제의 후원금 현황, 국고지원금의 현황을

12) 최병서(2002), 문화경제학과 만나기, 『한국문화경제학회』 5(2), p.139.

13) 고호석(2005), 지역문화축제 관광객의 선택속성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관광학회』 7(1), p.102.

통해 현재 부산국제무용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국고보조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전통예술행사 평가보고서¹⁴⁾를 보면 국내에서 진행되는 무용축제의 총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평균 4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총 사업비의 절반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산국제무용제의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와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시비로 나누어 측정이 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시청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부산국제무용제의 총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국비와 시비의 합)의 비율이 평균 8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체 무용축제의 국고보조금 의존율보다 부산국제무용제의 국고보조금 의존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2010 - 2013 부산국제무용제 국비 지원금 현황¹⁵⁾ (단위: 천만원)

구분	총 사업비	국비 지원금	국비 의존율(%)	시비 지원금	시비 의존율(%)
2010	540,000	270,000	50%	215,000	39%
2011	595,000	299,000	50%	245,000	▲ 41%
2012	692,000	380,000	▲ 54%	245,000	▼ 35%
2013	441,500	147,000	▼ 33%	245,000	▲ 55%

부산국제무용제는 진행 초기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은 아니며 축제 개최 4년 만에 사단법인으로 명칭이 바뀌고 5년이 되던 해부터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2009년 ‘AK21’이라는 신진무용가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표 2〉 2010 - 2013 부산국제무용제 자체자금 현황¹⁶⁾(단위 : 천만원)

구분	총 사업비	자체자금	재정자립도(%)
2010	540,000	55,000	10%
2011	595,000	51,000	▼ 8.5%
2012	692,000	67,000	▲ 9.6%
2013	441,500	49,500	▲ 11%

2) 자체 자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시청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부산국제무용제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1%로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간기관의 후원금 조성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축제의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¹⁷⁾ 그 이유는 부산국제무용제만

14) 예술경영지원센터(2010, 2011, 2012, 2013), 『공연·전통예술행사 평가보고서』, p.48, p.31 p.35 p.27 (연도 순대로).

15) 부산시청 문화예술과(2010, 2011, 2012, 2013), 『세출예산사업명세서』, p.3.

16) 앞의 글, p.4.

의 특징인 해변무대로 인해 티켓 수익이 거의 없으므로 후원금과 협찬금으로 자체자금을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3) 후원금 및 협찬금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총 12가지의 예술분야 중 전체지원금의 평균 1.5%만이 무용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무용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부산국제무용제 김정순 운영위원장은 기업의 무용산업 지원이 타 예술분야 보다 떨어지는 이유로 무용의 특성상 많은 사전 준비로 인한 시간적 여유가 타 예술분야보다 떨어져 기업과의 교류가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문화재단의 적극적인 메세나 기업 연결 시스템의 부족을 얘기하며 단적인 예로 러시아를 언급했다.¹⁷⁾

러시아의 경우 19세기 후반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기에 접어들며 해외 다양한 예술산업이 러시아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은 극소수였으며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 변화를 시도하고 노력한 결과 러시아만의 전통은 구축하되 그들만의 문화상품을 만들었다. 지식층의 노력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그들의 활동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됨으로 결국 경제성장 발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술의 고부가가치성은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 영역이 경제적 영역과 결합되어 파생된 산업적 생산 및 소비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전 분야를 의미하며, 문화상품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은 국제무용축제에 관해 잠재적 가능성을 깨닫고 그동안 부족했던 축제의 인식과 무관심을 개선하며, 국제무용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안경모는 “지역축제들이 적극적으로 이벤트로 잘 포장되어 개발될 때, 관광객들은 해당 지역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마침내 지역축제는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⁹⁾ 따라서 부산국제무용제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써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무용축제에 대한 한국의 공공지원은 타 예술분야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무용제 예산의 대부분을 공공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제 스스로 자립성을 키우고 투명성 있는 진행과 축제의 전문적인 운영시스템 교육을 통한 인력 구축이 형성 된다면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인식변화로 적극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2. 부산국제무용제의 고용창출 안정화

메이어스코가 주장한 고용창출 안정화는 예술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예술분야 종사자의 증가 및 인력 인프라 확장이다. 이는 축제를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예술분야 전문 인력들의 일자리 기회 마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고숙희는 “대규모 지역축제일 경우 관광객들의 지출은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효과와 생산과급 효과를 만들며 고용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

17) 부산국제무용제의 자체자금은 후원금과 협찬금이 포함된 금액을 의미함.

18) 부산국제무용제 김정순 운영위원장 인터뷰, 2015.4.6.

19) 안경모(1994), 향토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전략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다.²⁰⁾ 이에 무용 예술은 시간적·공간적인 제약과 더불어 관객과 같은 장소에 함께 있어야 하는 고도의 노동집약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²¹⁾ 이렇듯 노동 집약성 성질이 강한 무용산업에서의 고용창출은 무용축제산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부산국제무용제는 현재까지도 신진 안무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AK21)로 프로들만의 무대가 아닌 한국 신진 안무가들을 육성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게 된 기획 배경과 앞으로의 프로그램 방향을 김정순 운영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09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Ak21’을 시작하게 됐어요. 축제도 좋지만 어차피 벌여놓은 축제에 외국인무자들이 방문하여 그들의 작품을 접하니까 ‘아, 우리 젊은 안무가들을 육성해서 교류하고 나가는 문도 만들어 줘야 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중략) 앞으로는 처음부터 우리가 외국 단체를 초청할 때 매니저들이 자기들의 나라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던지, 그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애초부터 초청을 해서 국내 안무자들이 해외로 나아가는 방향을 터주는데 앞으로 신경을 더 쓸 거예요.²²⁾

부산국제무용제는 해외 유명 무용팀 뿐만 아니라 국내의 무용팀까지 다양한 안무가들과 무용가들이 모임에 따라 자연스러운 아트마켓이 형성되고 있다.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국제포럼과 국제무용워크숍이 있지만 김정순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변의 야외부스를 설치하는 계획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축제로 하여금 다양한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로 인해 고용창출 안정화가 된다는 주장은 겟츠(Getz)·피스비(Fisby)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지역축제의 개최는 많은 관광객이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관광객의 지출효과와 지역의 소득증대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²³⁾ 따라서 부산국제무용제의 고용창출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국·내외 전문가들이 매년 한 자리에 모여 세미나와 포럼을 진행하면서 무용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토의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내 무용가 및 안무가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AK21(국제 안무가 육성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보완하여 국내 무용인들에게도 열린 무대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국제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3. 부산국제무용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메이어스코가 주장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술산업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의 개발로 인한 지역의 예술산업이 발전, 편의시설 확충, 관광객들의 수요 증가 등이 있으며 나아가 예술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 고숙희(2001),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단양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0(2), p.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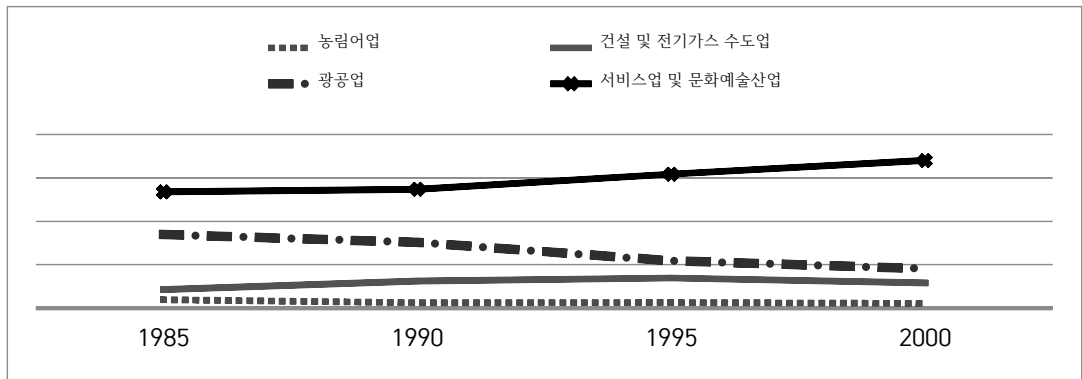
21) 이희영·박인자(2014),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의한 무용공연 시장 수요분석, 『무용예술학연구』 50(5), p.115.

22) 부산국제무용제 김정순 운영위원장 인터뷰, 2015.4.6.

23) Donald, Getz, & W. Fisby(1991), *The Role of Multiplies in Developing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Occasional Paper No. 16, Department of Recreation and Leisure Studies*(Canada: University of Waterloo), p.247.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전되며 지방 정부는 지역축제를 개발하여 전략적 비즈니스로 구축하였고, 지역문화의 발전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다.²⁴⁾ 지역문화축제 개최를 추진하는 주요 논리로서 열악한 지방재원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능케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²⁵⁾ 및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용 창출, 도시 재개발, 여가 활동의 다양화, 외래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외화 획득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와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추세이다.²⁶⁾ 이러한 문화축제는 관광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초기 부산은 태평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한국의 항구 도시로서 수출산업에 크게 기여하며 성장했다. 1970년대 한국 경제 및 공업 근대화의 기반을 두고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제2의 수도로 자리매김 하였지만 80년대부터 시작된 대도시 인구 과밀 해소와 산업 집중 완화를 위해 도시 성장을 억제하는 성장 관리 도시 정책을 실시하여 770여개에 이르는 수많은 공장들이 부산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산은 경제 특화 산업이었던 노동집약적 산업 경쟁력 상실되었고 수출의 감소, 도시 개발 억제 등으로 경제의 하강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1990년 후반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들의 여가시간 증대로 부산의 주 산업이었던 경공업 쇠퇴하고 서비스업과 예술산업이 발달하며 부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수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한 서비스업이 꾸준히 성장하며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다양한 행사와 공연, 축제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림 1〉 1985-2000 부산광역시 연도별 산업 구조 변화²⁷⁾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의 농림어업 및 광공업 등이 쇠퇴하고 서비스업 및 문화예술산업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산은 문화관광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부산국제무용제를 비롯하여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바다축제, 해운대모래축제 등 부산의 지역적 조건에 부합하여 다양한 축제들이 생겨

24) 김영면(2009), 현대지역축제 발전 방안, 『관광연구』 6, p.63.

25) 박희태(1998), 지역축제의 무용 활성화 방안 연구, 『무용학회논문집』, p.179.

26) 서강석(2008), 축제와 무용예술, 『한국동양예술학회』 13, p.321.

27) 통계청(1985-2000), 『시도별 지역 내 총 생산 보고서』, p.1.

나고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부산을 방문하고 있다.

현재 부산국제무용제의 메인무대인 해운대 특설무대는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무료관람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지역 관광객유치에도 도움이 되며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결국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예술인들에게 지원이 되며 보다 더 좋은 작품을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부산국제무용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해변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한 다양한 관객층의 연령이다. 따라서 부산국제무용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별하는 것도 큰 과제로 매년 전문인들도 보고 배울 수 있는 전문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단체와 관객들이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대중성이 있는 작품에 초점을 맞춰 신중히 선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²⁸⁾

현재까지 다양한 축제를 통해 부산은 예술도시의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은 보다 적극적인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으로 나타날 것이며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대중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지역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및 관객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로 부산국제무용제의 독립성을 키운다면 나아가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사료된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안

국제무용축제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왔다. 타 예술분야에 비해 저조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기획으로 국제무용축제산업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무용축제산업은 새로운 관객층 확보를 위해 내수기반을 다지고, 국제무대 진출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면서 문화예술을 통해 국가 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무용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양한 것이 있지만 현재로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국제무용축제산업의 잠재적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축제를 개최해야 하는 일이라 사료된다. 경제학자 존 메이어스코 예술의 고경제성 이론을 통한 부산국제무용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국제무용제는 축제 규모에 비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축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체계적인 축제 운영시스템 구축과 축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진행이 요구된다.

두 번째, 한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은 국제무용축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으로 축제에 대한 지원 활동이 미비했다. 따라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국제무용축제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부산국제무용제 또한 축제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요

28) 부산국제무용제 김정순 운영위원장 인터뷰, 2015.4.6.

구된다.

세 번째, 한국 공공기관의 국제무용축제 지원금은 타 예술분야에 비해 저조하지만 현재 부산국제무용제의 총 사업비 절반이 공공기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축제를 위한 전용 극장이 없어 자체자금 형성의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부산지역의 지원으로 축제 기간 중 지역 문예회관이나 공공시설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네 번째, 국제포럼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한국의 무용산업 발전에 힘쓰고, 국내외 유명 무용단체의 공연으로 한국 무용산업의 성장과 국내 무용전문인들에게 창작의 영감을 주지만, 정작 국내 무용가들의 참여 기회의 폭은 좁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부산국제무용제는 ‘AK21(국제 안무가 육성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더 많은 국내 무용가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 주었지만 축제의 규모에 비해 미약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더욱더 다양한 AK21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보완하여 국내 안무가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한국의 부산국제무용제는 해운대라는 특수한 지역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 관객 확보에 유리하므로 더욱더 다양한 관객층 확보를 위해 관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본 결과 국제무용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지향해야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국제무용축제의 전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마련으로 책임감 있는 축제의 진행이 요구되며 지역적 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과 국제무용축제 스스로 자체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축제의 재정자립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축제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며 각 기관은 국제무용축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무용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예술 활동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축제 기간 중 아트마켓 형성에 대한 구체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축제를 위한 관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보는 축제를 넘어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 개발된다면 부산 국제무용제는 그 가치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 방향은 우리나라 축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국제무용축제에 관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축제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해외 문화정책을 취합하여 한국의 문화정책을 개선 할 수 있는 연구 등을 제안해본다.

■ 참고문헌

- 김기연(2003). 『문화예술경영 이론과 실제』. 서울: 청소년문화포럼.
- 라도삼, 이호영(2003).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1997). 『한국의 지역축제』.
- 부산시청 문화예술과(201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_____ (2011).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_____ (2012).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_____ (2013).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예술경영지원센터(2010). 『공연·전통예술행사 평가보고서』.
- _____ (2011). 『공연·전통예술행사 평가보고서』.
- _____ (2012). 『공연·전통예술행사 평가보고서』.
- _____ (2013). 『공연·전통예술행사 평가보고서』.
- 통계청(1985-2000). 『시도별 지역 내 총 생산 보고서』.
- Adam, Smith(1843). *The Wealth of Nations*. Hayes Barton Press.
- Baumol and Bowen(1966). *Performing Arts-The Economic Dilemma: A Study of Problems Common to Theatre, Opera, Music and Dance*.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 Throsby, David(2004). *Economics and Cultur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nald. Getz, and W. Fisby(1991). *The Role of Multiples in Developing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Occasional Paper No. 16, Department of Recreation and Leisure Studies*. Canada: University of Waterloo.
- Frey, Bruno S. and Werner W. Pommerehne(1989). *Muses and Markets: Explorations in the Economics of the Arts*. Oxford: Blackwell.
- John Myerscough(1988).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 Kearns, G, Philo, C(1993).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Oxford: Pergamon Press.
- Towse, Ruth and Abdul, Khakee(1992). *Cultural Economics*. New York: Springer.
- 안경모(1994). 향토 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전략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고호석(2005). 지역문화축제 관광객의 선택속성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관광학회』, 7(1): 102-120.
- 고숙희(2001).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단양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0(2): 289-308.
- 권병웅(2012). 무용페스티벌의 재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관람객·출연진 만족도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33(1): 1-28.
- 김기연, 정무권(1996). 행정·정책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 개선방향. 『한국행정정보』, 30(4): 4171-4188.

- 김영면(2009). 현대지역축제 발전 방안. 『관광경영연구』, 6.
- 김은실, 도월희(2010). 광주지역 패션문화상품의 전략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16(2): 120-129.
- 박희태(1998). 지역축제의 무용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무용학회』, 25(1): 171-188.
- 서강석(2008). 축제와 무용예술. 『한국동양예술학회』, 13: 317-354.
- 신명숙, 황혜원(2005). 지역축제에 있어서 무용의 역할. 『무용역사기록학회』, 9: 119-140.
- 이숙재(1999). 한국의 무용진흥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 39(1): 722-730.
- 이혜진, 정옥조(2010). 문화관광 축제의 무용공연 활성화 방안. 『대한무용학회』, 65: 203-224.
- 이희영, 박인자(2014).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의한 무용공연 시장 수요분석. 『무용예술학연구』, 50(5): 115-136.
- 임상오(1997). 문화경제학의 사상적 원유 John Ruskin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45(1): 33-58.
- 조남규(2012). 천안흥타령춤축제 2011 관람객의 참여 분석을 통한 무용장르의 대중화 방안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36(3): 131-156.
- 최병서(2002). 문화경제학과 만나기. 『한국문화경제학회』, 5(2): 139-144.
- 황인주(2010). 지역특성을 고려한 무용축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19: 119-133.
- 황인주(2007). 부산시 무용공연 지원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무용기록학회』, 13: 183-207.
- 부산국제무용제 홈페이지. <http://www.bidf.kr/sub01_02.html. 2014.11.20.>.
- 부산국제무용제 김정순 운영위원장 인터뷰, 2015.4.6.

논문투고일 2015. 6. 15
 심사일 2015. 6. 22
 심사완료일 2015. 7. 6

The Study on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from a Economic Perspective

Lee, Yu Na* · Cho, Eun-sook**

M.D Candidate,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of Dance, Chung-Ang University**

The industrialization of culture and arts emerged with the cultural arts management of academic and social issues from the late 1990s, and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 variety of areas. Even though recognition of the arts has been growing, there is lack of recognition for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indus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conomic efficiency of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ased on the study by economist, John Myerscough.

According to his research, stabilization of employment creation,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and the added value of the arts industry would stabilize the economics of the art industry. This researcher argues that BIDF requires a systematic operation system, specialized personnel and consistent promotion. In addition, BIDF needs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ctive support.

Keywords: Cultural Economics(문화경제학), High Value Addition(고부가가치화), Regional Economy(지역경제), Local Festival(지역축제),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부산국제무용제)